

장흥군, “목재산업 중심지 도약 꿈꾼다”

장흥군이 지역 목재산업 부흥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도전한다.

장흥군 편백숲 우드랜드 초입에는 목재산업지원센터와 전남 목공예센터 임울대, 역불대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장흥군의 목재산업과 목재인력 양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목재산업지원센터는 목재관련 행정업무, 디자인 개발, 목제품 생산 등 파트별 업무를 맡고 있다.

1층에는 홍보전시실, 체험형 갤러리 카페, 제품제작실을 갖추고 있으며 2층과 3층은 교육실, 세미나실, 창업보육실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편백, 단풍나무 등 국산 목재를 활용한 양면·단면 상패, 탁상용·파티션 명패 등이 장흥군 직영 목제품으로 제작된다.

목재산업지원센터는 도마, 톱블러 우수디자인(GD)과 상표권 등 14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개관 이래 현재까지

21억 2천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재산업지원센터 내 창업보육실에는 전남장흥지역 자활센터, 신활력 플러스 사회적 협동조합 등 2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건너 편에 자리한 전남 목공예센터는 역불대와 임울대 등 2개 건물로 구성돼 있다.

임울대는 1층 장흥군 대표 특산품인 표고버섯 홍보관과 목공예 교육 홍보전시관, 2층은 상설 전시관으로 꾸며져 목공 체험장 등 다양한 전시홍보관으로 이용하고 있다.

역불대 1층에서는 지역 목공예산업의 전초기지인 5개 공방이 입주해 편백 목제품 판매장과 민간 업체(공예·공방)가 상주해 우수 목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2층은 목공예 교육프로그램, 목공 체험지도사 2·3급 과정 양성을 위한 교육장으로 운영된다.

/백두연 기자



장흥군 편백숲 우드랜드 초입에는 목재산업지원센터와 전남 목공예센터 임울대, 역불대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장흥군의 목재산업과 목재인력 양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보성 ‘소박한 차꽃축제’ 개최

녹차수도 보성군은 최근 농업유산마을 영천리 소공원에서 한해 차농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제14회 소박한 차꽃축제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소박한 차꽃축제’는 영천리마을주민공동체(대표 김경옥)와 전남차연구회(대표 조현곤)가 주관하며, 차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점 차재배 농가들이 모여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하며 관광객들에게 보성의 차문화를 알리는 축제다.

이번 축제에는 차농가와 문화인뿐만 아니라 보성군귀농귀촌협의회 회원 등 200여 명이 함께했으며, 300여 년 이상 된 차나무 2그룹을 마을에 기증해준 안효원 씨에 대한 보성군수 표창도 이뤄졌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인 보성 전통차농업을 보존하고 홍보하는데 앞장선 YTN 김법환 호남취재본부장 등 유공자들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했다. 또한, 행사를 주관한 영천마을마을주민공동체는 보성군 귀농귀촌협의회와 귀농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강중수 기자

공영민 고흥군수, 고흥음식 세계화 선포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김밥포럼」에 참석해 ‘고흥음식 세계화’를 선포했다.

이번 포럼행사는 글로벌 한류 K-푸드 시장에 대한민국 김밥을 새로운 브랜드 상품으로 자리매김 시키고 김밥 세계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발전 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을 비롯해 주요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연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임준택 수협 중앙회 회장, 임경숙 한식진흥원 이사장 등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 수산물은 우수한 품질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그중 고흥김은 글로벌 K-푸드 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다”고 말했다.

이어 “김밥은 속 재료에 따라 무한변신이 가능한 완전식품으로 김밥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고흥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영민 군수는 ‘고흥음식 세계화 선언’을 통해 “고흥김과 유자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이를 비롯한 고흥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고흥김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김밥 세계화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대한민국 김밥 포럼과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식문화 플랫폼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며 고흥군 농수산물 해외 마케팅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은 유자(26%)와 김(11%)의 세계적인 주요 생산지로서 대한민국 농수산물 수출 효과 상품인 고흥유자와 고흥김을 브랜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진도군, 노령 진도개 복지 지원사업 추진

예산 6천여만 원 투입...사료비 등 보호료 지원

진도군이 노령 진도개를 대상으로 진도개 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선진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 6천여만 원을 투입, 노령견을 대상으로 진도개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진도개 복지 지원사업은 농가 방문 현지 확인 등 진도개 실태조사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된 진도개 중 생후 7살 이상인 노령견을 대상으로 1두당 19만 원을 300여 두에게 사료비 등 보호료를 지원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편성해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진도군은 동물복지·보호 실현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명예동물보호감시원 제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반려견 복지 문화 정착 기틀 마련과 진도개 보호·복지를 위한 지원 확대와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해남 농산물 제주도 특판전

해남군은 최근 제주도 내 제주시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땅끝해남 농수특산물 특판전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2017년 이후 5년만에 열리는 대규모 특판행사로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땅끝해남의 각종 농수특산물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판행사는 11농가가 참여해 쌀과 고구마를 비롯한 잡곡과 전통장류, 전통차, 김, 멸치 등 70여 종의 해남특산물을 판매, 소비자들에게 땅끝해남의 신선함과 건강함을 선보였다.

특히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해남 절임매추와 양념을 이용한 김치 버무림 및 시식, 김장 나눔 행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박종욱 기자

완도, 공공 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

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는 2022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곡을 지난 11월 3일 청산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매입에 들어갔다.

이번 수매는 1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2022년 산 공공 비축미 2,891톤(72,275포/40kg), 2021년 산 시장격리곡 1,195톤 등 총 4,086톤 매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매입 물량은 33,838포(1,353톤)으로 올해 213% 증가했다.

매입은 소형(40kg), 대형(80kg)로 구분해 진행하며, 매입 품종은 새청무와 새알미이다.

매입 과정에서 다른 품종을 혼입해 수매할 시 적발되면 5년간 공공비축 수매가 제한된다.

/박나영 기자

